



## 오늘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신화의 현실 신화세계의 상징과 은유 소설로 형상화

—「신들의 반란」 펴낸 임병주씨

**이 책 그 사람**  
단언하건대 지금은, 신화의 세계가 아니다.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현실세계가 지금 우리의 세계다.

신화의 세계는 이제 상징과 은유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신화의 세계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상징과 은유 그 자체만으로도 신화의 세계는 끊임없이 현실세계를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병주씨(38, 출판기획 아리수 대표)가 쓴 「신들의 반란」(공간)은, 암시를 현실세계로 끌고와 다른 시간, 다른 공간에 있는 현실과 신화의 긴 통로를 만들어 주고 있는 소설이라는 점에서 우선 특이하다. 또한 그리스 로마신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그 자체를 '비틀어' 보임으로써 신화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다시금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는 독특함도 갖고 있다.

“모두 55가지의 신화를 인용하고는 있지만 이 책은 신화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제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신화는 신화 그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탁을 해석해야만 하듯이 오늘날 새롭게 신화를 해석해내야 신화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제우스가 아버지 크로노스를 죽이고 권력을 잡으면서 시작된다. 절대자 제우스의 권력 앞에 우뚝 서서 불을 훔쳐 인간에게 문명을 선사한 고독한 영웅 프로메테우스, 권력의 비정함과 영웅의 고독을 가슴 아파하는 사랑의 신 에로스, 신이 내린 죽음을 거부하며 운명에 반항하는 시지푸스. 네 신과 사람을 중심으로 신들의 감옥인 타르타로스의 정경이 묘사되고,

권력과 재물에 눈이 어두운 신들이 차례차례 등장한다.

임병주씨가 해석하는 신은 숭고하고, 신비한 분위기를 연출해내지 않는다. 때로는 추잡하고 더럽고 권모술수에 능한 존재로 신들은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인간을 겁탈하는 제우스, 제우스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 인간을 죽이는 헤라, 제우스에게 아부하는 여러 신들. “신이라고 해야 별다른 수 있겠느냐”는 것이 임병주씨의 神觀이다. 임병주씨의 시지푸스에 대한 해석은 유별난 재미를 독자들에게 안겨준다. 떨어지는 돌을 계속 굴러 올리던 시지푸스가 신이 내린 형벌을 거부하는데, 그 이유는 돌을 굴리는 것이 무의미한 노동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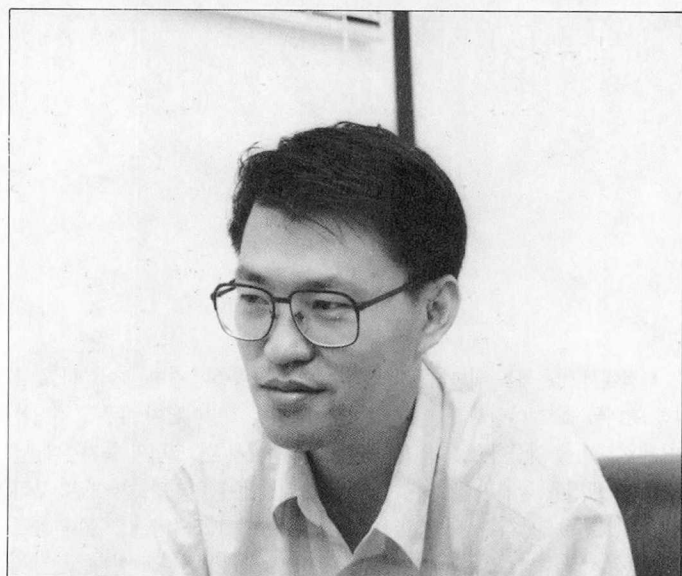
“신이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싫습니다. 저는 신과 인간이 자연의 피조물이라고 보기 때문에 인간은 주체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지푸스의 경우도 신화와는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임병주씨는 세례까지 받은 가톨릭 신자다. 하지만 그는 신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 단지 신화의 세계에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소설의 끝은 제우스와 프로메테우스를 비롯한 모든 신들이 타르타로스라는 지옥에 갇히는 것으로 맺어진다. 단지 살아남는 신은 인간화 된 에로스일 뿐인데, 임병주씨가 이렇게 결말을 맺는데도 그만한 이유가 있다.

“신의 간섭은 없어졌습니다. 이제 인간에게 남은 것은 사랑일 뿐입니다.”

—이성수 기자



## 영화애호가들 위한 재미있는 영화이야기 객석에서의 감동과 흥분 책으로 되살려

—「영화마을 사람들」 펴낸 박지연씨

**이 책 그 사람**  
“나는 영화관에서 영화가 끝나고 스크린에 ‘엔드’ 타이틀이 사라지는 순간까지 객석에 앉아서 묘한 흥분과 진율을 느낀다. 매번 느끼는 이러한 기분은 내 생활에서 최고의 즐거움이다.”

현재 영화 음악 해설가로 활약하고 있는 박지연씨(39)가 자신의 가장 큰 즐거움인 ‘영화’에 대한 소감을 피력한 말이다. 골목 어귀에 진을 치고 있는 비디오 가게가 많이 생겨날수록 이에 비례해서 영화애호가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제는 영화에 관한 한 “매니아”라고 자처하는 비디오 가게 주인들도 나타나고 있어 ‘영화광’들의 “입맛에 딱 맞는” 비디오들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영화를 보지만 머릿속에 남는 건 인상적인 부분 한두컷과 주제음악의 선율 뿐이다. 이쯤 되고 보면, 그동안 봤던 영화들을 정리해 볼지도 하다.

박지연씨가 펴낸 「영화마을 사람들」(도서출판 유정)은 이러한 영화애호가들에게 그동안 봤던 영화들을 차분하게 정리하게끔 한다. 저자는 최근의 헐리우드 영화들을 중심으로 작품 소개와 아울러 대표적인 헐리우드의 배우, 작가, 영화음악 작곡가, 헐리우드의 촬영감독 등을 다룬다. 그의 영화의 이론적인 부분으로서 헐리우드의 ‘뉴시네마’의 기원과 영화의 장르를 구분한 ‘로드 무비’ ‘갱스터 무비’ ‘컬트 무비’ 등을 소개하기도 한다. 또 헐리우드 영화 말고도 우리나라 영화애호가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프랑스 영화를 여러 편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수많은 영화들을 감독이나 배우, 촬영감독의 성향별로 정리해 보는 재미도 안겨준다.

저자 또한 영화애호가이자 현재 KBS 제2FM 「영화음악실」 구성작가와 영화음악 해설가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인지 영화애호가들의 기호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최근에 헐리우드 영화 직배사들이 국내에 진출한 것에 관해서도 영화애호가들의 편에서 얘기하고자 한다.

“영화선택의 자유는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유일한 특권이기에 때문에 어떠한 기준과 한계를 초월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엔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지요. 정서에 많은 해가 되는 불량 영화들은 스스로 외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지연씨가 영화라는 매체를 난생 처음 접한 시기는 국민학교 5학년 때. ‘왕우’라는 중국 감독의 「외팔이」였다. 그후 중학생이 돼서는 차마 개봉관은 들어가지 못하고 가발을 쓰고 동시상영관을 찾아 전전했다. 이처럼 “선천적으로” 영화광이었으나 정작 그가 영화때문에 “밥”을 먹을 수 있게 된 계기를 얘기하자면 어머니를 빼놓을 수 없다.

“어느날 어머니가 돈을 주면서 시내에 있는 극장에서 「벤허」라는 영화를 상영하고 있으니 꼭 보라는 겁니다. 게다가 보고 나서 감상문까지 적으라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시작된 영화와의 인연이 너무나 깊어져 그는 오늘도 스크린의 ‘엔드’ 타이틀을 용납하지 않는 영화광들을 위해 영화음악 해설을 한다.

—배은희 기자



## 가족사의 추억과 체험 노래한 서정시집 삼대에 걸친 삶의 굴곡 절실하게 표현

—「별똥별」 펴낸 김종해씨

이 책 그 사람

대부분의 시인들은, 작품집을 묶을 때 필요한 자서나 후기 등 '파라텍스트' 쓰기의 신난함을 토로한다.

작품이야 써오던 관성의 힘과 자신에게 익숙한 시의 문법으로 생산해낼 수 있지만, 파라텍스트는 전혀 생소한 '장르'인 것이다. 더구나 그것은 시인에게는 최후의 최선이며, 독자에게는 시집에 입문하는 오솔길이다.

시보다 짧은 글 속에 시집의 무게를 감당하는 '그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는 노고는 말 그대로 고통이라고 많은 시인들은 말한다.

최근 8번째 시집 「별똥별」(문학세계사)을 상재한 김종해 시인(53)은 그의 자서에서 30여년 詩歷의 연륜으로 시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첫문장은 "나는 아직도 모른다"이며, 마지막 문장 역시 "나는 아직도 너를 모른다"이다. 시에 대해 안 적이 없다는 그같은 고백이 詩業에 게으른 적 없는 위숙한 시인의 진력을 다한 서문에 자리한다는 점에서 읽는 이를 숙연케 만든다.

"모양을 갖추지 않아서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고요한 것, 그러나 부드럽게 때로는 격렬하게 움직이는 것, 내 안에 있으면서 어느덧 너에게 가 있고, 너에게 있으면서 나를 일으키고 소리치게 하는 것, 떨림이 있고 울림이 있고 팽팽함이 있어 우리를 설레게 하고 혼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나는 아직도 모른다."

「별똥별」은 시인의 3대에 걸친 가족사의 굴곡과 그 구비구비에서의 "파도치는 날 바람부는 날"을 짙은 서정으로 그리고 있다. 궁궐과 사채만 남긴 채 타계한 아버지로부터 시인 자신의 삶, 아우인 김종철 시인,

최창살에 갇힌 아들, 친지와 知인의 이야기들이 펼쳐진다. 그 등장인물들은 '추운 겨울'에서 '꽃필 차례'를 짚어내는 김시인의 '상처를 이겨낸 사랑'에 힘입어 "어느덧 꽃가루 같은 서정시를 터는/한 마리 벌"이 되어 날아오른다.

"6, 70년대에는 순수시의 계열에 속하는 작품을 썼습니다.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까지는 억압받고 소외된 사람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지요. 이번 시집은 가족사에 얽힌 체험과 추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가장 무거운 문제를 민감하게 짚어낸다는 시인으로서의 자의식은 변함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는, 삶의 천정에 매달았을 때 가장 절실한 현실을 언어로 표현하는 예술이니까요."

말로써 명쾌히 시의 정의를 내리면서도, 글로써는 "모른다"고 '잡아떼는' 국면에서 김시인의 염결한 시정신을 간파하기란 어렵지 않다. 그에게 서문이란 다른 한 편의 시작품이었고, "모른다"는 고백은 스스로 도저히 본질주의자임을 '詩的으로' 천명했던 셈이다. 그래서 「별」이란 작품은 「별똥별」에 대한 시론으로도 읽히고 있다.

"양봉업자 이종만 씨가/.../꽃을 찾아다니는 것은 벌 때문이 아니다/.../순전히 꽃을 탐닉해서가 아니다/별은 그의 촉수,/그는 향기 있는 곳을 안다/세상의 아름다움과 부드러움이 갖는 분비물을/그는 잘 짚어내지만/그가 기르는 벌은/항시 사람사는 세상을 날고 있다/그가 가는 곳에는 향시 꽃피는 봄이 있다/.../양봉업자 이종만 씨의/별들이 날아오를 동안/그도 어느덧 꽃가루 같은 서정시를 터는/한 마리 벌이 되어 있다" —김중식 기자



## 한반도 전쟁위기로 작품화한 이색장편소설 군사전문가 시각서 '땅굴'에 주목해 인상적

—「땅굴」 펴낸 존 얼드리치씨

이 책 그 사람

미국의 동북아 군사안보문제 전문가가 한반도 전쟁위기를 소재로 장편소설을 출간했다. 피츠버그대 부설 리지웨이센터(국제안보연구소) 연구원 존 얼드리치(58)씨가 바로 그 화제의 인물로 「THE TANGUN TUNNEL」 우리나라서 동시출간된 제목도 같은 「땅굴」(을유문화사, 이다).

“결프전에서도 보았듯 水·陸·空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현대의 군사과학기술로 대개 예측도 대응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승패의 관건은 북한이 남한의 지하 깊숙이에 여러 갈래로 파놓은 '땅굴'이 아닐까 싶습니다. 군사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땅굴의 실존 형태는 예측을 훨씬 능가하는 수준에 와 있다는 것이 공통적입니다.”

작가는 한국민의 뇌리에서 이미 잊혀져가고 있는 땅굴의 위험성을 심각할 정도로 강조한다. “물론, 가정들입니다. 가정했을 경우 가장 큰 허점이자 치명적일 수 있는 부분이 '지하'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 예로 작가는 이미 30년이 다가오는 베트남 전쟁의 결정적인 패인 중 하나가 불과 4년전 비밀스럽게 공개됐음을 밝힌다. 알고보니 미군기지는 물론 야전병원의 바로 밑에까지 월맹의 탱크부대, 비행기 격납고가 들어와 있었던 것.

“있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일”이라는 작가가 소설 「땅굴」에서 맺는 결론은 다행스럽게도 해피엔딩. 북한이 난관에 봉착한 땅굴작업을 계속 진행시키기 위해

캐나다의 전문가를 비밀리에 영입하는데, 미국의 예비역 해병대령인 쿤이 캐나다인 땅굴전문가 맥켄지로 위장하여 북에 잠입한다. 맥켄지는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부터 북한에서 암약해온 한·미 비밀첩보원 '큰곰' '작은곰'과 연계, 북한의 남침용 땅굴과 그 속에 있는 핵무기 저장소를 폭파한다는 줄거리다. 그밖에도 김일성 사후 인민무력부장과 사회안전부장의 패권을 노린 숙명적 권력다툼, 국적을 초월한 사랑과 임무완수 후 헬기를 타고 필사적으로 탈출하는 주인공들의 활약 등은 첩보미스터리 스타일을 만끽하게 해주는 주변 줄거리들이다.

작가가 이 소설을 처음 쓴 것은 지난 88년. 그보다 이미 10여년 전에 하이테크 음파탐지회사의 대표로 우리나라의 비무장지대 및 판문점을 둘러보며 땅굴현장을 참관했고, 그때부터 짝튼 관심이 서울 올림픽을 전후해 남북간에 묘한 군사적 긴장이 감돌 무렵 그간의 수집자료를 바탕으로 집필에 착수했던 것. 완성된 원고는 탈고 직후부터 예측할 수 없이 급변하기 시작한 국제정세 때문에 컴퓨터에 내장된 채로 있다가 올 초 북한 핵개발이 국제사회의 빅이슈로 떠오르자 새롭게 보강, 비로소 완성을 보게 된다. 국제군사문제전문가이자 미네소타작가연구회 회장도 겸임하고 있는 그는 이 「땅굴」에 이어 「은쟁반 3호작전」 「제 5' 세력」도 곧 마무리, 일본과 한반도를 무대로 하는 군사첩보활동 주제의 스티러를 3부작으로 완간할 계획이다. 한국관 역자는 「통제불능의 세계」 「국력비교연구」 등의 역. 저서로 알려져있는 재미언론인이자 국제정치 학자인 최규장 박사다. —정혜옥 기자